

밴쿠버 성 김대건 성당 (St. Andrew Kim Parish)

구역 소공동체 기도회 교재

# 한 망

10222 161St. Surrey, B.C V4N 2J8 전화: 604-588-5831

www.standrewkim.com

2018년  
9 월호

## < 소공동체 기도회 진행 순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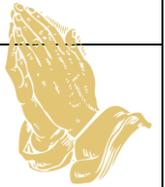
1. 시작 성가 (구역, 소공동체에서 선정)
2. 인사 나누기
3. 시작 기도 (소공동체 모임 기도)
4. 복음 나누기

### < 복음 나누기 7 단계 >

“지금부터 복음나누기 7단계를 시작하겠습니다”

- (1) 주님을 초대한다.
- (2) 성경 본문을 읽는다.
  - + 9월 1일 : 마르코 7,1-8.14-15.21-23
  - + 9월 2일~ 8일 : 마르코 7,31-37
  - + 9월 9일~15일 : 마르코 8,27-35
  - + 9월 16일~22일 : 마르코 9,30-37
  - + 9월 23일~29일 : 마르코 9,38-43.45.47-48
  - 다시 한 번 더 읽는다.
- (3) 마음에 닿는 단어나 구절을 선택한다.
  - 큰소리로 기도하듯이 세 번씩 읽는다.
  -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읽는다.
- (4) 침묵 중에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
- (5) 마음 안에 들려온 말씀을 나눈다.
  - 자료 읽기
- (6) 모임에서 해야 할 활동에 대해 토의한다.
  - 지난 번 모임에서 결정한 활동을 보고한다.
  - 이 달에 해야 할 활동은 어떤 것이 있나요?  
(무엇을, 누가, 언제 할 것인가?)
  - 생활 말씀 나누기와 정하기
  - 본당 소식을 전달한다.(선교장)
  - 기타 사항, 질의 응답, 건의 사항
  - 출석 점검, 다음 모임 일시 및 장소 정하기.
- (7) 자발적으로 기도한다. (자유기도)
  - 복음 나누기 7단계 자체 평가지

### < 소공동체 모임 기도 >



+ 주님 !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약속 하셨사오니  
당신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들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 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향구한 일치로 굳세어 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본 당 소 식

### 1. 그룹 성경공부 모집

- 오전반 : 화요일(10am) -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사도행전
- 오후반 : 금요일(7pm) - 창세기, 마르코 남성반 (창세기) 신설
- 접수 : 8월 19일(일) ~ 9월 9일(일) 매 주일미사 전.후
- 접수비 : \$40 ♣ 개강미사 — 9월 11일(화) 10:00am 미사
- 문의 : 박정자 모니카 ☎ 778) 988-6498 이경옥 노 엘 ☎ 778) 319-0971

### 2. 9월 21일 시니어아카데미 개강

### 3. 제 22차 밴쿠버 ME 주말

- 일시 : 2018년 11월 9일(금) ~ 11일(일), 2박 3일
- 장소 : Super 8 (1881 Sumas Way, Abbotsford) - 신청비 : \$60
- \* 본당 소개모임 : 10월 21일(일) 11:30am ~ 12:30pm
- \* 참가 희망자들은 일정을 미리 준비해 주십시오.
- 문의 : 진재훈 스테파노 진선주 세라피나 ☎ 604) 828-8477

### 4. 10월 28일 주임신부님 영명축일

## 구 역 소 식

### ▶ 구역 음식 세일 일정

월별	제 1 주	제 2 주	제 3 주	제 4 주	제 5 주
9	KOC	Surrey Guildford	Surrey Fleetwood	추석	호스피스
10	Fraser Heights	Abbotsford 2회	White Rock 2회	미정	++++

### ▶ 미사 예물 봉헌 일정표

월별	제 1 주	제 2 주	제 3 주	제 4 주	제 5 주
9	Langley Willoughby /Downtown 5 공동체	6 공동체	New Westminster 1 공동체	2 공동체	Surrey Fraser Heights 1 공동체
10	2 공동체	3 공동체	4 공동체	미정	

★★★ 『소공동체 모임에 참석치 않는 교우들을 초대하여 이웃 사랑을 함께 나눕시다.』

# 2018 천국 노래 자랑

## [행사 기획 배경]

2018년 본당의 사목 지침인 “사랑방 공동체 만들기”의 세부 계획사항의 하나로 신자들간의 친목 도모와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본당진단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소공동체 활성화와 젊은 세대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찾고자 음악문화축제인 본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 [행사 기획 목표]

행사를 준비하는 봉사자, 경연참가자 및 이들을 응원하는 신자 등 본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신자들이 당일 행사 자체뿐 아니라 더불어 그 준비과정 전체를 즐기고 이를 통한 즐거움과 친교를 증대시키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본 행사추진의 주안점을 두고자 합니다. 특히 구역공동체 신자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하는 노래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세대간의 통합을 추구하고 구역별 새로운 신자들의 참여로 신앙 생활의 기쁨이 될 신명 나는 공동체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 [행사일정및 내용]

일시 : 2018년 10월 27일(토) 5시 미사 후

장소 : 밴쿠버 성 김대건 성당 성전

참가신청 : 성 김대건 본당 공동체 전 신자

**참가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에 따로 예시하였습니다.**

노래 선정 : 구역가(또는 단체가) 및 성가(또는 복음성가)

- 두 곡 중 택일 가능, 노래와 율동가능, 구역가는 음악 장르에 상관없이 공동체/단체의 특성을 소개하거나 주님을 향한 찬양 내용이 담기도록 개사를 해야 합니다.

**\* 구역가 (또는 단체가) = 자유곡 (개사 필수)**

신청기간 : 9월1일부터 9월 15까지 접수해주시면 행사 준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신청접수 : 조진환 안토니오 604-349-2738

이종명 프란치스코 604-798-0258

## < 참가 팀 예시 >

1. 구역단위로 참가한다.
2. 2개 이상의 구역끼리 또는 구역과 단체의 콜라보레이션도 가능합니다.
3. 단체 중 청소년, 베이직, 한글학교 등은 단독 출전도 가능합니다.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배려로 많은 참가 부탁 드려요)
4. 청소년 단체가 다른 연령대나 구역과 콜라보레이션을 희망하면 적극도와 드리겠습니다.  
(조진환 안토니오, 이종명 프란치스코 형제님께 연락하세요 )
5. 팀의 연령대가 다양할수록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6. 구역별 별칭을 만들어 주세요. Ex) 무지개 공동체

## 고통도 하느님 사랑의 다른 얼굴입니다.

Pope 프란치스코

시골집에서 불이 나면 소가 절대로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소를 끌어내는 것이 큰 일입니다.

아무리 힘센 장사도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바로 소의 여물통을 엮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가 '이제는 이곳에 소망이 없구나~ 이곳에는 더 이상 내가 먹을 것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지 제 발로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실 때,

고난을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외양간의 소 같아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순순히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진정 행복하다고 여기지 못하고 삽니다.

오히려 여물통을 엮으시는 하느님 때문에 영적으로 무너진 이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물통을 엮지 않으면 우리는 불에 타 죽을 수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여물통을 엮으시는 하느님은 우리를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여물통을 엮으실 때 우리는 많이 힘들고 아픕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통은 잠깐이요. 생명은 영원합니다.

잃어버린 여물통 대신에 주님이 우리의 여물통이 되심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여물통을 '내어놓으라' 하십니다.

'이것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하고 악착같이 붙잡고 있는 여물통을

하느님은 건드리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여물통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여물통이 없어져도 행복합니다.

"주님! 눈물이라는 선물을 허락하소서.

당신의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의 죄에 대해서 울 수 있게 해 주소서..."